



세상으로
향하는
첫번째 문을
열어주세요.

청소년부모란,
24세 이하, 이혼/사별/미혼의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입니다.


한 해 약 2천명의 아이가
10대 부모로부터 태어났습니다.



2,211명

〈15~19세母的 출생아 수〉
(통계청(2015) 인구동향 조사)

이제 외면하고 눈감기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도움을 주어야 할 때입니다.

A white door with a silver handle is centered against a blue wall. The door has a classic panel design with a large central rectangle and a smaller one below it. The text is overlaid on the upper part of the door.

청소년한부모,
선생님과 학교가 열어주면
세상의 모든 문이 열립니다.



청소년한부모에게는
부·모로서 양육 권리,
청소년으로서 학습할 권리,
국민으로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양육권

청소년 한부모도 자신의 아이를 키울 수 있습니다.

청소년한부모들은 아이가 생겼을 때 낳지 말라,
키우지 말라, 입양하라는 이야기를 먼저 듣습니다.

“안타까워서 그런말 하는 건 알겠는데요,
‘일찍 왔으면 낙태할 수 있었는데’라는 말이요.
제가 있는 병원은 칠개월까지도
낙태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어리니까 너는 경제적 능력도 없고,
애기에 대한 양육자식도 없고,
근데 덜컥 애를 낳아서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이런 거죠.”

학습권

임신 중과 출산 후에도 학습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청소년한부모들은 학교를 계속 다니기가 힘듭니다.

“저는 학교를 다니고 싶은데,
학교 이미지 때문에
전학을 가라고 하셨어요.”

“너 때문에 우리 학교 이미지 다 망가진다,
그러면서 같이 병원에 가자고..”

“애들한테 임신사실 말하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연락 끊고 지내라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임신·출산을 이유로 차별을 경험했다는 비율이
43.4%에 이릅니다.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청소년한부모 종합대책연구 II



첫번째 문 열기

선생님, 이렇게 말해 주세요.



DOs

임신해서 학교다니느라
힘들지 않았니?
그동안 고생했구나.

당황한 아이들에게 공감하고
마음을 다독여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지
같이 얘기해 볼까?

학생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존중해 주세요.
양육하려는 학생들에게는 힘을 주세요.

아기 아빠도(또는 엄마도)
아기가 생긴 것을 알고 있니?
같이 이야기해 보았니?

아이의 엄마와 아빠는 함께 책임질
필요가 있다는 것도 일깨워 주세요.

DON'Ts



어휴~ 내가 못살아~
학교 망신이다!
친구들과 연락하지 마라.

당황한 아이들을
비난하지 말아 주세요.

낳을지 말지 판단 잘해라.
너무 늦게 알아서
아기를 못 지우겠네!

출산을 존중하지 않는 말은 삼가 주세요.

경제적 능력도 없고
양육지식도 없는, 어린 니가
어떻게 키우겠니!

키울지 말지 판단 잘해라.
입양 보내라.
애한테도 입양이 낫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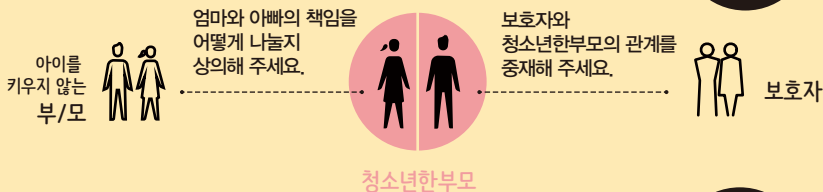
학생들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선생님의 생각을 강요하지 말아 주세요.



두번째 문 열기

학교는 이렇게 조치해 주세요.

먼저, 학교는 청소년한부모를 도와줄 담당교원을 지정하고, 청소년한부모의 담임선생님과 담당교원은 다음과 같이 도와주세요.



당사자간 중재와 조치

교내 학적처리와 연계

① 학적 유지해주기

학적을 가지고 있어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고 학업을 계속 이어나가거나 검정고시 등으로 졸업이 가능해져요.

②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위탁교육기관으로 연계하거나 복학시키기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위탁교육기관에서는 청소년한부모들이 함께 교과과정을 공부합니다.

서울	나래대안학교(애란원)	02 -393-4720	경기	홀트고운학교	031-216-9081
부산	마리아모성원	051-253-7543	강원	마리아의집	033-262-4617
대구	가톨릭푸름터	053-764-8537	충남	새소망의집	041-568-0691
인천	자모원(바다의별대안학교)	032-772-0071	전북	민들레학교	063-283-1356
광주	인애복지원	062-651-8585	전남	성모의집	061-279-8004
			경남	로뎀학교	055-292-4747
			제주	애서원(무궁화아카데미)	064-773-2010

※ 상세한 연계, 복학과정은 각 시도교육청 위탁교육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세요.

③ 수업료와 입학금 지원받고 고등학교 다니기(저소득 청소년한부모)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청소년한부모가구(국민기초수급권자 가구 제외)

* 교육비 실비(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 특목/자사고는 연간 5백만원 이내

학교 재적응 지원

- 친구들에게 말할 내용도 청소년한부모와 상의해 주세요. 출산을 밝힐지, 밝히거나 밝히지 않기로 했다면 어떻게 설명할지를 의논해 주세요.
- 학교에 돌아왔을 때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세번째 문 열기

지원정책을 백분활용해 세상으로 한걸음!

임신 기간

- 보건소에서 **건강관리**를 도와줘요
임신 시기마다 혈액검사, 기형아 검사, 초음파 검사, 당뇨 검사 등 제공, 엽산제와 철분제 지원
- **바우처카드로 임신·출산·진료비를 받을 수 있어요**
모든 산모는 50만원까지, 만18세이하 청소년산모는 추가로 120만원을 더 지원받아요.

출산 전후

시설 이용시

-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요**
아이를 낳을 때는 기본생활지원형(최대 1년)을, 이후에는 공동생활지원형(최대 2년)이나 모자가족복지시설(최대 3년)을 이용해요.

시설 이용하지 않을 때

- **주민센터에서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을 신청하세요**
- 아동양육비: 월 15만원
- 자립지원촉진수당: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 월 10만원
- 검정고시 학습비: 연154만원 이내
※ 소득기준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 **시·도마다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이 있어요**
연간 70만원 이내 병원비, 양육용품비 지원

아이 양육

-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미취학 아동은 보육료를 지원받아요.
-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오는 아이돌봄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양육비 법적 지원

- **아이를 키우지 않는 아이의 아빠·엄마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도와줘요**
- 아빠를 확인하는 검사비용(친자검사비) 지원
- 양육비에 대한 법적권 권리를 확보하는 서비스(양육비이행확보) 지원

궁금한 것은 바로바로 물어보세요!



1644-6621

한부모상담전화/
양육비이행관리원

1388

청소년 상담전화



www.mogef.go.kr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교육부